행정안전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7. 30.(수) 12:00
(지 면) 2025. 7. 31.(목) 조 간

# 여름휴가, 물놀이사고·폭염·식중독 특히 조심!

- 물놀이사고 사망자의 48% 8월에 발생, 온열질환자 지난해의 2.6배 주의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사고와 폭염 속 온열질환,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□ 최근 5년(2020~2424)간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며, 이 중 절반 정도인 54명(48%)이 8월에 발생했다. 특히,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 초순에 27명으로 가장 많았다.

<최근 5년간 물놀이사고 사망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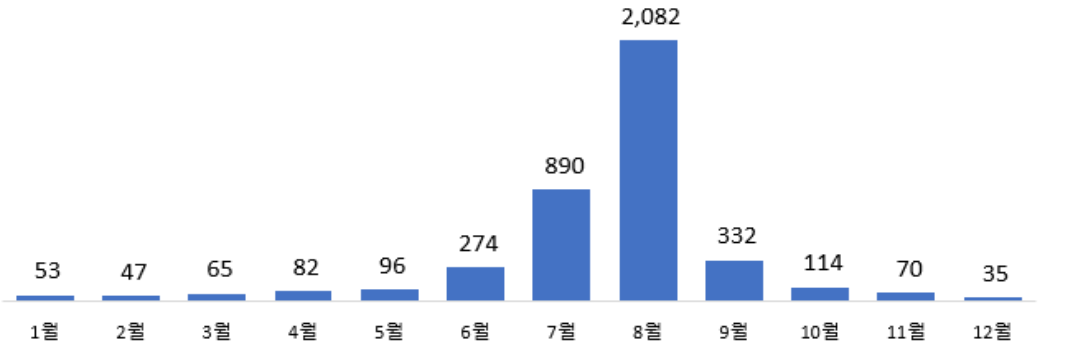



[출처: 행정안전부]

○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가 37%로 가장 많았고, 수영미숙 34%, 음주수영 17%, 높은 파도(급류) 7% 순이다.

○ 8월은 해파리와 같은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, 월별 가장 많은 2,082명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.

<최근 5년간('20~'24) 기타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환자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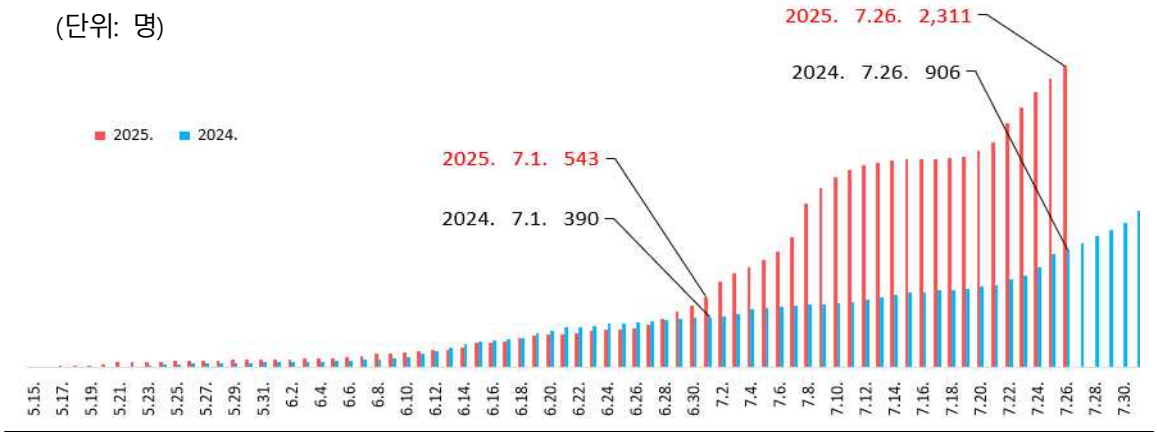

※ 기타 독성 바다동물: 해파리, 말미잘, 불가사리 등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, T63.6)

[출처: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, 보건복지부]

□ 또한, 휴가 기간에는 야외 활동도 많아지며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과 식중독 발생에도 주의해야 한다.

○ 특히, 올해 7월 서울의 낮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는 등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(5.15.~7.26.)도 지난해 같은 기간(906명)보다 2.6배 많은 2,311명 발생했다.

<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>




[출처: 온열질환 감시체계, 질병관리청]

○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음식이 빨리 상해 식중독에 노출되기 쉽다. 최근 5년(2020~2024)간 발생한 식중독은 총 1,352건이며,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은 196건이 발생했고, 8월이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.

<최근 5년간('20~'24) 월별 식중독 발생 건수>

| 구 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**8월**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발생(건) | 99 | 58 | 78 | 95 | 108 | 138 | 196 | **163** | 142 | 92 | 85 | 98 |

[출처: 식품안전나라, 식약처]

□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
**《 물놀이사고 및 해파리 쏘임 예방 》**

○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,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.

○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물에 들어갈 때는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 반드시 입는다.

○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고,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.

○ 바다에 들어갈 때 전신수영복이나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해파리 쏘임을 예방한다.

○ 바닷속에서 갑자기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에 쏘임이 의심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 안전요원이나 119의 도움을 받는다.

- 이때, 쏘인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, 해파리가 피부에 달라붙었을 때는 맨손으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물건이나 장갑 등으로 떼어낸다.

**《 온열질환 및 식중독 예방 》**

○ 무더위 속에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,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다.

○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, 술이나 카페인, 탄산이든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.

○ 특히, 폭염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.

○ 또한, 무더운 날씨일수록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, 음식은 가급적 익히거나 끓여서 먹는다.

- 음식물이나 식재료를 직접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짐칸 등에 넣어두면 부패하기 쉬우므로 얼음상자(ice box)에 넣어 보관한다.

○ 아울러,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, 복통, 설사, 발열,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다.

□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“일상을 떠난 휴가일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

○ “관련된 예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 사고 없는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란다”라고 강조했다.

| 담당 부서 | 안전예방정책실<br>예방안전제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지만석 (044-205-451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정인성 (044-205-4505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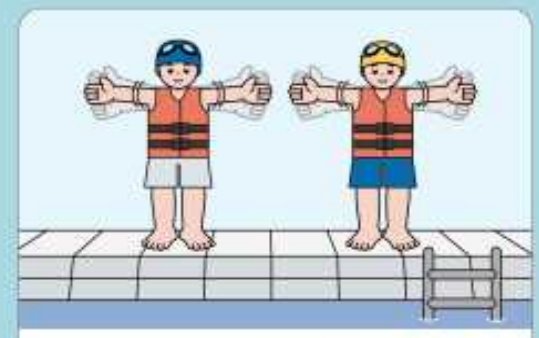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참 고 물놀이사고 예방요령



행정안전부

# 물놀이
## 이렇게 행동하세요!



충분한 **준비운동**을 하고
**구명조끼 착용** 후 물에 들어가기




**안전요원**의 안내를 따르며
**어린이**는 반드시 **보호자와 함께**하기




**안전구역**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
**음주 후 수영**은 **절대 금지**




사고 발생 시 **주위에 소리쳐 알리고**
**즉시 119에 신고**



사고 발생 시 구조하려고 함부로
물속에 뛰어 들지 말고 **현장에 비치된**
**안전장비**를 **활용**해 안전하게 **구조**



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면
**인공호흡**이나 **심폐소생술** 등
**응급처치 실시**